

# 광주시, 1605억 투자유치...미래산업 거점 도약

### 자동차·인공지능·에너지 등 유망기업 11곳과 협약 체결 공장 신증설·연구소 설립 통해 일자리 517개 창출 기대

광주시가 세계 경기 둔화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규모 투자 유치를 끌어내며 '미래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자동차·인공지능(AI)·에너지 분야 유망기업 11개사와 총 160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디앤, ㈜나전, ㈜리얼디자인, 하이퍼협동조합, ㈜달구, ㈜모리스, ㈜에스더블유엔, ㈜골든선, ㈜리셀, ㈜무진기연 등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자본 투자를 넘어 공장 신·증설과 연구소 설립 등 실질적인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517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별로 보면 ㈜디앤은 자동차 내장재와 흡차음재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평동산단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고, 차량 경량화에 최적화된 첨단 내장재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나전은 평동산단 내 공장 매입과 설비 확충을 통해 생산 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완성차 업체 공급망을 강화한다.

하이퍼협동조합은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에 제품 제작시설을 구축해 지역 청년작가 및 소상공인과 협업하는 디지털 제작 환경을 조성한다.

㈜달구는 딥러닝 기반 고급차 공정배차 엔진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모리스는 빛그린국가산단에 자동차 시트 및 편의장치 생산라인을 구축해 미래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시청에서 열린 '2026년 광주 핵심전략산업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형 자동차 실내 변화에 대응하고, ㈜에스더블유엔은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부품 모듈 생산기점을 조성해 모빌리티 산업 전환

을 앞당길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투자가 이어진다. ㈜골든선은 에너지밸리산단에 태양광 구조

물과 발전시스템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리셀은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양산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에너지 소

재 상용화에 나선다.

특히 ㈜무진기연은 520억원을 투자해 원전 설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을 구축하며,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120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리얼디자인은 자전거 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고도화해 인지장애 예방 및 재활 분야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투자유치 초기 단계부터 애로사항 청취와 장애요인 해소에 주력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광주를 선택해 준 기업들에 감사하다"며 "투자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각 산업을 대표하는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함평 나비 대축제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전시와 우리 농산물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 전남농협, 함평 나비축제장서 우리농산물 나눔

###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전시도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함평 나비 대축제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전시와 우리 농산물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함평군과 지역 농·축협,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해 여성농업인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캠페인은 함평 지역 농·축협이 생산한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을 전시하고, 우리 농산물 나눔 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특히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현장 중심 홍보가 이어졌다.

농협 전남본부는 앞으로도 중앙본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농·축산물 담례품 확대와 소비 촉진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우리 농업·농촌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과 뜻을 모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게 돼 뜻깊다"며 "국내 대표 축제인 함평 나비대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에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수출입 중소기업 긴급자금 100억 지원

### 광주시, 중등 사태 대응...전 업종으로 지원 확대 업체당 최대 2억...대출금리 2%p 이자차액 보전

광주시가 중등 사태로 인한 원자재 수급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수출입 기업 지원에 나섰다.

광주시는 3일 총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지역 수출입 중소기업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이날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업력 10년 이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최근 중등 지역 불만에 따른 대외 경

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을 모든 수출입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제조 또는 서비스 매출 전액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가운데 2024년 이후 수출입 실적 있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업이 특정 주력 사업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신청 기업은 한국무역투자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누리집에서 발급한 수출입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원이며, 대출 조건은 2년 거주 후 일시 상환 방식이다.

시는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금리 가운데 2%p를 이차차액보전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기존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도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경제

진흥상생일자리재단 누리집 내 금융유지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단 심사를 거쳐 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12개 협약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오영걸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중등 사태로 인한 수출입 기업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긴급 자금이 지역 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주 유망 창업기업 '유니콘' 육성

### 캔디옵틱스·레이븐머티리얼즈·일리오 등 5곳 선정 사업화 자금·투자 유치·전문컨설팅 등 단계별 지원

광주시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 창업기업을 선별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한다.

광주시는 최근 빛고을창업스테이션(STA·G, 스테이지)에서 'G-유니콘 육성 프로그램 참여기업 경진대회'를 열고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G-유니콘 육성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광주시 대표 창업지원 정책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사업 확장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업력 7년 이내(신기술 창업 10년 이내) 기업 가운데 본사를 광주에 두고,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선발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시민평가단이 참여해 기

육성·사업성·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캔디옵틱스 △레이븐머티리얼즈 △씨에스지마 △씨일리오 △씨에이드 등 5곳이다.

캔디옵틱스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듀얼센서 융합 하이브리드 광학 렌즈 모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레이븐머티리얼즈는 고순도 흑색 산화티타늄 기반 친환경 소재 제조 기술을 확보했다.

씨에스지마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양 기상예보 및 수산생태계 변화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고, 일리오는 생생형 AI 기반 글로벌 팬텀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씨에이드는 온디바이스 AI 기반 시각장애인 보행 보조 자율이동 로봇 기술을 앞세우고 있다.

시는 이들 기업에 시제품 제작과 마



광주시는 최근 빛고을창업스테이션(STA·G, 스테이지)에서 'G-유니콘 육성 프로그램 참여기업 경진대회'를 열고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했다.

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기업별 최소 9000만원에서 최대 1억 6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기업 3곳에는 최대 30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국내외 투자유치(IR) 연계 △대·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해외 전시회 참가 △맞춤형 전문 컨설팅 등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해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진출 지원과 투자 연계를 강화해 '에비유니콘'을 넘어 '글로벌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오영걸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G-유니콘 육성사업을 통해 발굴된 기업들이 실제 투자 유치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기반 유망 창업기업을 지속 발굴해 광주를 창업 성공률이 높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주, 중등전쟁 영향에도 생산 6.0% 증가

### 전남은 2.8% 감소...소비는 시·도 모두 위축

중등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광주 생산은 증가했고 전남은 소비 부진이 이어졌다.

3일 국가데이터센터 호남지방데이터청에 따르면 '2026년 3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 조사 결과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자동차(20.1%), 담배(56.7%), 통신(27.6%) 등은 증가했지만 금속가공(-30.3%), 전기장비(-12.1%), 고무·플라스틱(-19.9%) 등에서 감소했다.

추이는 1년 전보다 1.9% 줄었다. 자동차(5.6%), 전자·통신(21.9%), 담배(29.0%) 등이 증가하고, 전기장비(-18.7%), 금속가공(-31.1%), 기계장비(-13.9%) 등이 감소했다.

재고는 전기장비(72.7%), 자동차(9.9%), 고무·플라스틱(22.7%) 등이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9.9% 증가했다. 1차 금속(-24.6%), 식료품(-37.7%), 금

속가공(-16.6%) 등은 줄었다.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5.9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했다.

백화점 판매는 4.4% 증가했지만 대형마트 판매가 18.0% 감소한 것이 주요했다.

건설수주액은 86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4%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철도·궤도, 토지조성 등 토목부문(100.2%)이 늘어나고, 사무실·점포, 공장·창고 등 건축부문(-33.7%)은 줄었다.

전남의 경우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8% 줄었다.

석유정제(38.1%), 전기장비(42.0%), 기계·장비수리(7.1%) 등이 늘고, 전기·가스업(-20.4%), 1차 금속(-5.4%), 화학제품(-1.4%) 등이 감소했다.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69.2로 전년 동월 대비 20.3% 대폭 감소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광주·전남 제조업 체감경기 소폭 상승

### CBSI 0.6p ↑...전국 평균과 격차 여전

지난달 큰 폭으로 하락했던 광주·전남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가 한 달 만에 소폭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4월 광주·전남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제조업 CBSI는 81.3으로 전월 대비 0.6p 상승했다. 지난달 9.8p 급락 이후 반등에 성공했지만 전국 평균(99.1)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CBSI는 기업경기 실적 지수(BSI) 중 업황·생산·자금 사정 등 주요 지수를 이

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 평균치(2003년 1월~2025년 12월)를 기준값(100)으로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1.8로 전월보다 2.0p 하락했다. 반면 전국 평균은 92.1로 0.1p 상승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4로 전월 대비 2p 상승했다. 생산지수(62), 매출지수(57), 신규수주지수(69)도 각각 1p씩

올랐다.

경영 애로사항으로 제조업체들은 전월에 비해 내수부진(+2.4%p)의 비중이 증가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1.7%p), 원자재가격 상승(-1.1%) 등의 비중은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비제조업체들은 불확실한 경제상황(+1.2%p), 원자재 가격 상승(+0.7%p) 등을 주요 애로 요인으로 꼽았고, 인력난·인건비 상승(-1.5%p) 등의 비중은 줄었다고 응답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